

삼척 미로단오제의 전승 현황 및 연구사

Current Status and Research History of Samcheok's "Miro Danoje"

신성환* / 유춘동**

국문요약 '미로단오제'는 적어도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미로면에서 지역 주민의 주도로 성대히 운영되고 있다. 미로단오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단오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운영의 지속성' 측면만이 아니다. 미로단오제가 "한국의 전통 민속 신앙인 굿, 개인의 안녕을 위한 기복 신앙, 마을 공동체의 소망을 담은 신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미로단오제의 원류가 삼척의 오금잡제(烏金簪祭)의 전통, 더 나아가 동해안 지역의 전통적인 단오 동제(洞祭)의 원형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로단오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동안 삼척의 유관 기관과 개인 연구자들은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미로단오제의 기원(起源), 제의(祭儀)의 과정, 제의를 주관하는 주무(主巫)에 대한 연구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앞으로도 '미로단오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고, 더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제 미로단오제를 주관할 수 있는 전문 무속인이나 지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로단오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로단오제'의 전승 현황, 문화재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삼척, 단오, 미로단오제, 오금잡제, 문화재적 가치, 무형문화유산 추진 방안

* 강원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부교수(제1저자).

** 강원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 전공 부교수(교신저자).

1. 서론
2. 미로단오제의 조사 및 연구 상황
3.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삼척은 타지역과 다른 독특한 민속 문화의 전통을 발전시켜왔고, 지금도 이러한 민속 문화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한국 민속 문화의 보고寶庫’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삼척의 지리적 여건이 산촌, 어촌, 농촌의 문화가 복합적으로 공존해 있고, 각각의 어려운 자연 환경의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⁰¹

특히나 삼척은 세시 풍속의 복합문화권이라는 독특한 민속적인 특징을 지닌 지역이기도 하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하여 기줄다리기가 행해졌고, 단오 때에는 각 마을 단위로 다양한 형태의 동제洞祭가 운영되었다. 이러한 삼척의 세시 풍속은 과거 강릉지역의 강릉단오제江陵端午祭와 비견될 만큼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1967년에 시행된 ‘전국 부락 제당祭堂 조사’에 따르면 삼척에는 모두 160여 곳에서 제당이 있었고 이곳에서 각종 세시 풍속 행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미신 타파’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세시 풍속 행사는 대부분 사라졌고,⁰² 이제 미로단오제, 초곡 단오제, 선흥 단오제만이 남아있다.⁰³

01 황루시, 『삼척의 가정신앙』, 삼척시립박물관, 2015.

02 정유진, 「박정희 정부기 문화재 정책과 민속신앙」,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03 윤동환, 「초곡 단오굿의 전승양상과 의의」, 『도서문화』 3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8.

이 글에서 다룬 ‘미로단오제’는 지금까지도 해마다 미로면에서 지역 주민의 주도로 성대히 운영되고 있다. 미로단오제를 주목하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단오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운영의 지속성’ 측면만이 아니다. 미로단오제가 “한국의 전통 민속 신앙인 굿, 개인의 안녕을 위한 기복 신앙, 마을 공동체의 소망을 담은 신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독특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⁰⁴ 미로단오제의 원류가 삼척의 오금잠제(烏金簪祭)의 전통, 더 나아가 동해안 지역의 전통적인 단오 동제(洞祭)의 원형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⁰⁵

이러한 미로단오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그동안 삼척의 유관 기관과 개인 연구자들은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왔다.⁰⁶ 그 결과 미로단오제의 기원(起源), 제의(祭儀)의 과정, 제의를 주관하는 주무(主母)에 대한 연구 등이 논의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최종 목표는 앞으로도 ‘미로단오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내가고, 더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아직까지 달성하지 못했다.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제 미로단오제를 주관할 수 있는 전문 무속인이나 지역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미로단오제’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대책 마련이 준비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로단오제’의 전승 현황, 문화

04 이창식,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 『강원민속학』 22, 강원민속학회, 2008;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05 이창식, 「삼척지방 오금잠제의 구조와 의미」, 『강원민속학』 7·8, 강원민속학회, 1990; 김성환, 「태백산산신 옥도검과 삼척 오금잠제」, 『한국전통문화연구』 27,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연구소, 2021.

06 『실직문화』 등에 수록된 삼척 지역의 연구 성과는 김도현이 자세히 검토한 바가 있다. 김도현, 「삼척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실직문화』 30, 삼척문화원, 2019.

재적 가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주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미로단오제의 학술적 평가를 다룰 것이다. 미로단오제는 지금도 유지되는 단오굿, 단오 세시 풍속으로 삼척 지역에서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러한 미로단오제의 가치와 의미 부여에 인색한 상황이다. 미로단오제가 ‘무형유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미로단오제가 지닌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2023년에 진행되었던 미로단오제의 전승 상황을 다룰 것이다. 미로단오제의 시작 원년^{元年}은 지금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로단오제는 영동 남부 지역의 유일한 단오제이자 단오굿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로단오제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선행 연구에서 미로단오제, 미로 단오굿의 절차, 진행 방식을 정리하였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체계화하고 기록화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 작업은 미로단오제의 전승 형태나 단오굿의 절차에 주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로단오제의 ‘전승성’, ‘예술성’, ‘대표성’ 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미로단오제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미로단오제가 갖는 문화재적 가치를 다룰 것이다. 미로단오제의 문화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원지역의 단오 세시 풍속, 동해안 지역의 전통적인 단오동제, 삼척의 대표 행사였던 오금잠제, 그리고 미로면에서 행해지는 산맥이와 천제^{天祭} 등의 전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미로단오제가 단지 삼척 지역만의 연례 행사가 아니라, 강원도를 대표하는 단오 행사이자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2. 미로단오제의 조사 및 연구 상황

미로단오제가 ‘국가무형유산/무형문화재’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미로단오제가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간의 논의를 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로단오제는 적어도 일제강점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⁰⁷ 하지만 미로단오제의 구체적인 실상이 국내에 알려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미로단오제의 실상이 알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전까지 강원도의 민속 문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무속이나 굿, 동제洞祭 등을 검토하는 일에 치중했다. 이 과정에서 삼척의 민속과 풍속은 단편적으로만 언급되었다. 삼척 연구의 시작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 강원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였다.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조선의 무격巫覡』을 기술하면서 강원도 전역의 무속 현황을 다루며 삼척을 언급했다. 그의 관심은 ‘무속巫俗’과 ‘무속인巫俗人’, ‘동제洞祭’였지만 삼척의 현황을 자세히 기술하지 못했다.⁰⁸ 따라서 이 논의에는 미로단오제가 빠져 있다.

삼척의 민속, 삼척의 세시 풍속에 대한 연구와 조사는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었다. 이 시기는 전통 민속 문화에 대

07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08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은 삼척의 무속 전문인을 세습, 생업, 영감(靈感), 호기심 등으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村山智順, 『朝鮮の巫覡』, 조선총독부, 1932(무라야마 지준, 최길성·박호원 역, 『조선의 무격』, 민속원, 2014).

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화재법이 정비되던 때였다. 1958년의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 1962년의 문화재보호법 제정, 1965년의 지방문화 사업 조성법, 1969년의 전국민속조사사업 등이 차례로 시행되면서, 삼척의 마을 신앙이 자연스럽게 파악되었다. ‘전국 부락 제당 조사’ 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7년 12월에 시작되어 1968년 2월에 끝난 이 사업은 전국의 각급 초등-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근무 지역에 있는 ‘마을 제당’ 등을 서면으로 정리하는 일이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삼척 전역에 대략 160여 곳의 제당⁹⁹이 파악되었다. 이후 이에 의거하여 삼척의 마을신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국책 사업으로 진행된 강원도의 민속 조사 등은 ‘강원도 민속 문화’의 중요성을 세상에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몇 가지 문제를 안겨다 주었다. 가장 큰 문제는 강원도 각 지역마다 지역 특유의 문화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의 문화가 서로 다르고, 각 지역 내에서도 문화의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책 사업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고 강원도를 하나로 묶어서 문화적 의미와 특징 등을 부여했다.

그 결과 굿은 ‘동해안 별신굿’, 단오제는 ‘강릉단오제’만이 집중적으로 조명 받고 지원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다. 동해안의 긴 해안선을 따라 존재하는 ‘별신굿’은 지역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동해안에 위치해있다는 점만으로, 동해안 북부, 중부, 남부 지역에서 행해지는 굿 모두를 ‘동해안 별신굿’으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생겼다.⁹⁹ 이것은 단오제도 마찬가지였다. 단오제는 강원도 전역에서 각 지

99 황루시, 「동해안 굿의 전승 상황과 특징」, 『한국무속학』 17, 한국무속학회, 2008; 윤동환, 「강원도 무속의

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강원 지역 단오제의 전통은 무시되고 강릉단오제만이 강원도를 대표하며 단오제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를 따르는 ‘아류 단오제’로 인식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강원도 전역에 종합대학이 생기면서 이러한 경향에 변화가 생겼다. 핵심은 강원도의 문화를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체계화하여 연구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전까지 강원도 각 지역의 민속 문화가 지역성이나 특수성에 맞게 논의되지 못하고,¹⁰ 문화 일반의 보편성 측면만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를 권역별-지역별로 구분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밝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강원대, 강릉원주대, 관동대에서 삼척의 민속과 세시 풍속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연구했다.¹¹ 이 과정에서 삼척에 있는 각 항·포구, 어촌의 민속 신앙 등이 주목받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필요한 영역만이 조사되었고, 무엇보다 삼척 전체가 아닌 해신당이 발달한 정라진(汀羅津)과 원덕면(遠德邑)만이 조사의 주 대상지가 되었고, 나머지 지역 예컨대 미로단오제를 비롯한 각종 단오제는 논의되지 못했다.¹²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삼척의 민속 문화와 ‘미로단오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시기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 연구자의 참여가 시작되었고, 삼척의 민속과 단오제의 파악을 위한 참여 관찰과 심층면접의 진행 등이 진행되면서, 삼척의 주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 미로단오제의 구체적인 전승 상황, 기록화 작업과 의미 부여가 이

양상과 특징], 『한국민속학』 62, 한국민속학회, 2015.

10 윤동환, 「강릉단오굿의 실체와 허상」, 『남도민속연구』 29, 남도민속학회, 2014.

11 강원대의 김일기, 배재홍, 김의숙, 차장섭 교수, 강릉원주대의 장정룡 교수, 관동대의 황루시 교수가 대표적 인 예이다. 그리고 여기에 세명대의 이창식 교수, 김도현, 윤동환 등의 연구자가 있다.

12 김의숙, 「민속신앙부분」, 『강원문화연구』 3,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3.

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미로단오제’에 대한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 삼척문화원, 삼척시립박물관, 실직문화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¹³

이때 ‘미로단오제’는 ‘미로단오제’ 단독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미로단오제’의 원류로 평가받는 ‘오금잠제(烏金簪祭)’에 대한 연구,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을 미로면 지역의 산메기 및 천제(天祭), 태백산 신앙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경향이 생겼다. 이러한 1990년대의 주요 연구 성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연도	연구자 및 주관 단체	제목
1	1992	김지옥	「마을굿 연행양상 고: 삼척 미로 서낭 단오굿을 중심으로」, 『문화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2	1994	이창식	「단오굿 놀이에 대하여」, 『실직문화』 5, 삼척문화원
3	1995	관동대 국어국문학과	『삼척시 미로 지역의 기층문화』, 삼척문화원
4	1996	강원대 국어국문학과	「삼척군 학술답사보고서」, 『강원문화연구』 15, 강원문화연구소
5	2000	이창식	『삼척지역의 민속문화』, 삼척문화원
6	2001	김태수·김진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메기, 천제, 단오굿」, 『실직문화』 12집, 삼척문화원
7	2008	이창식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 『강원민속학』 22, 강원민속학회
8	2010	삼척시·강원대	『미로단오제』, 삼척시/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 삼척시
9	2011	윤동환	『삼척의 무속』, 삼척시립박물관
10	2017	문혜진	「삼척 오금잠제(烏金簪祭)의 변천에 관한 일고찰」, 『무형유산』 3, 국립무형유산원
11	2018	전성희	「삼척 미로단오굿의 연행 양상과 특징」,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12	2018	윤동환	『삼척 단오굿』, 삼척시립박물관

13 김도현, 「삼척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실직문화』 30, 삼척문화원, 2019.

13	2019	김도현	「마을 천제(天祭)의 구조와 성격」, 『한국민속학』 69, 한국민속학회
14	2020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15	2021	김성환	「태백산산신 옥도검(玉刀鈐)과 삼척 오금잠제(烏金簪祭)」, 『한국전통문화연구』 27, 전통문화연구소

[1]은 미로단오제의 존재와 문화재적인 가치를 학계에 처음으로 알려진 중요한 성과이다. 김지옥은 1991년부터 1992년까지 2년의 기간 동안 ‘미로단오제’에 직접 참여하여, 단오제로서의 미로단오제가 지닌 특징, 미로단오제의 연행의 방식 등을 논의했다. 이 연구는 미로단오제가 지닌 세 가지 중요한 지점을 지적했다. 첫째, 미로단오제가 지닌 중요성이다. 강원도와 관련된 각종 역사 자료를 검토하고, 강원도 내의 단오제의 전승 상황, 미로단오제의 의례 절차 및 형식 등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미로단오제가 강릉단오제와 맥을 같이 하는 ‘단오제’라는 견해를 제시했다.¹⁴

둘째, 미로단오제의 절차와 형식이 지닌 특수성이다. 미로단오제는 단오 때가 되면 단순히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보여주기 행사의 민속 행사가 아니라, “서낭굿으로서의 무굿, 조상 상차림 등의 개인 치성제, 씨름·그네뛰기 등이 민속 행사가 이루어지는 마을 단합제”의 복합적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했다. 즉, 미로단오제의 ‘단오굿’은 “마을 서낭을 위한 굿판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조상을 위한 개인 치성제의 장이며, 마을 사람들을 위한 놀이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미로단오제에서 진행되는 굿의 절차는, “다

14 김지옥, 「마을굿 연행양상 고: 삼척 미로 서낭 단오굿을 중심으로」, 『문화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 4쪽.

른 지역에서 행해지는 굿과 달리 무굿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무굿 전에 마을에서 선정된 제관들에 의해 행해지는 유식형태(儒式形態)의 당제(堂祭)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굿의 성격은 개인 치성의 비중이 다른 마을굿에 비하여 높으면서도 이것을 무췌에 맡기는 신앙의례로서의 종교적 제의성이 강한 독특한 마을굿”이라고 정의했다.

셋째, 미로단오제의 운영 시기에 대한 입장이다. 미로단오제의 기원과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에는 지금도 이견이 없다. 특히 삼척에서 행해졌던 오금잠제, 천제(天祭), 동제(洞祭), 해신제(海神祭), 산맥이 등의 전통을 볼 때, 미로단오제의 연원은 이와 같이 맥을 같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적어도 언제부터 미로단오제가 시행되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보도 기사를 보면 1999년에는 “200년 전통의 마을 행사”로,¹⁵ 2008년도에는 “100년 전통의 마을 행사”로,¹⁶ 그리고 2009년부터는 “원년은 알 수 없으나 강원 영동 남부권 유일의 단오제”로 미로단오제의 시작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¹⁷

이 연구에서 밝힌 중요한 사항은 미로단오제의 주관을 “최분옥^여, 1927년생, 별호: 부영이 무와 그의 제자 무췌”들이 함께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부영이 무당 최분옥은 1927년생으로, 그는 구술을 통하여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미로단오제를 보았고, 무당이 된 1930년대 후반부터 이 행사에 참여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60대부터 미로단오제가 진행되어 왔다”고 증언했다. 즉 연구가 이루어진 1991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적어도 “1920년대부터 미로단오제가 진행되어왔다”는 사실

15 「미로단오제 내일 개막, 200년 전통의 마을행사」, 『강원일보』, 1999.8.11.

16 「삼척 미로단오제 행사 풍성」, 『강원일보』, 2008.6.6; 「삼척 미로단오제 구경하세요」, 『강원도민일보』, 2008.6.6.

17 「삼척 미로단오제 개막」, 『강원일보』, 2009.6.5.

을 밝히고 있다.¹⁸

미로단오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일제 강점기였던 1920년대에 미로단오제가 있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미로단오제를 “100년 전통의 단오 마을 행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2]는 선행 연구에서 달리, 미로단오제를 강릉단오제와 맥을 같이 하는 ‘단오제’가 아니라, 삼척 지방의 전통 행사였던 ‘오금잠제’에서 비롯되었다고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¹⁹ 이창식은 이에 앞서 ‘오금잠제’를 학계에 자세히 소개한 바가 있다.²⁰ 이 연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미로단오제와 오금잠제와의 관계를 논의한 것이다. [1]이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연행 사항에 기반을 두어, 미로단오제의 성격과 전승 상황을 제시했다면, [2]는 1992년부터 1993년까지의 전 과정을 살핀 것이다. 그리고 [1]에서 살핀 연행 양상과 대조해본 결과 미로단오제는 단오를 주관하는 “무녀들의 넘나듦 이외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²¹ 미로단오제는 “동제이자 마을 공동 제의의 형태의 단오굿놀이, 미로면 지역의 고대 제의 전승 양상, 산맥이와 별신국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현재 계승하는 자료”라는 견해, “미로단오제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관광화해서는 안 되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전승되는 원형대로 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다루지 못했던 마을 주민들과의 인

18 김지옥, 앞의 논문, 7쪽.

19 이창식, 「단오굿 놀이에 대하여」, 『실직문화』 5, 삼척문화원, 1994.

20 이창식, 「삼척지방 오금잠제의 구조와 의미」, 『강원민속학』 8·9(합집), 강원민속학회, 1990.

21 위의 논문, 참조.

터뷰 자료를 통하여, 미로단오제의 운영 시기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적어도 일제강점기였던 1920년대부터 미로단오제가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창식은 이후에도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미로단오제에 참여했고, [5]와 [7]을 통해서 미로단오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미로단오제의 운영 방향, 미로단오제의 아카이브 방안, 미로단오제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²²

[3]과 [4]는 관동대 국문학과, 강원대 국문과에서 삼척을 대상으로 답사를 진행한 조사 보고서이다. 전자는 미로면 6개 마을^{고천리, 내미로리, 동산리, 상정리, 천거리, 활거리}을 대상으로 마을 개관, 민속신앙 생활, 인간의 일생, 세시 풍속, 생활 구조, 생업 기술, 민요, 설화, 미로면의 방언 어휘, 자료 사진 등을 자세히 조사했다. 후자는 삼척의 역사 및 위치, 설화부문, 민요부문, 방언부문, 문헌 지명부문 등으로 미로면의 일반론을 다루고 조별로 지역을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조사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아쉽게도 두 보고서에는 미로단오제에 대한 자세한 기술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볼 수 없는 미로면의 성향당과 당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수록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두 보고서에서 주목할 사실은 지역 대학의 학생들의 정기 학술 답사가 지역 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6]은 미로면에서 행해지는 산메기, 천제^{天祭}, 단오굿의 전반적인 성격을 다룬 것이다. 이전의 연구가 오금잠제와 미로단오제의 관계에 주목했다면, 이 글은 미로면 전체에서 행해지는 민속 행사인 ‘산메기, 천제, 단오굿’를 묶어서, 각 행사의 관계 및 영향성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

22 이창식,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 『강원민속학』 22, 강원민속학회, 2008, 454쪽.

글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룬 단오굿 전승의 상황에 더해, 굿거리의 진행을 “부정굿 → 당맞이 → 화해굿 → 천왕굿^{산신굿 포함} → 조상굿 → 세존굿 → 손님굿 → 군웅대감굿 → 말명굿 → 잔맞이 → 상살맞이 → 꽃노래 → 뱃노래 → 등노래 → 거리굿”으로 구분하여 각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미로단오제는 “집집마다 집에서 상을 차려와 굿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강릉단오제에서 시행하는 단오굿과 차이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미로단오제만의 특징이라고도 하였다.

아울러 이 글에서는 미로단오제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미로단오제를 “산메기와 천제, 미로단오제를 엮어서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때 “사라진 것은 다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전승되던 그대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될 것”이라고 미로단오제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²³ 한편, 이 글을 통해서 밝힌 미로단오제의 진행 절차는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 공동체 전통예술잔치 사업’에서 재현되어,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업 중에서 우수축제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8]은 삼척시와 강원대 강원전통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미로단오제’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한 최초의 종합 연구보고서이다. 지금도 삼척에 대한 연구를 왕성하게 수행하는 차장섭, 김도현, 이창식, 윤동환, 김태수 등이 모여서, 미로단오제의 전승 상황, 삼척 민속굿의 전통, 삼척에서 진행되는 각종 세시 풍속 및 민속과 연계하여 ‘미로단오제’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라 할

23 김태수·김진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메기, 천제, 단오굿」, 『실적문화』 12, 삼척문화원, 2001, 106~107쪽.

수 있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옥선 무녀가 간직해 온 필사본 무가집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본 자료는 지금은 고인이 된 이옥선 무녀가 연행했던 미로단오제의 무가의 전승 내용, 미로단오제의 상황 등을 재구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9]는 제목이 『삼척의 무속』으로 되어 있지만, 삼척의 무속만을 살펴본 것이 아니다. 미로단오제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오금잠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서부터, 미로단오제를 포함하여 선홍단오제, 초곡단오제에서의 절차 등을 정리해 놓은 삼척 무속 문화, 삼척단오제에 대한 종합 보고서이다. 윤동환은 2001년에 미로단오제의 조사를 시작하여 2010년까지의 결과를 이 책에다가 정리해두었다. 이 책이 출간됨으로써 삼척 무속 전반의 성격과 특징, 미로단오제 등이 정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12]를 통해서 미로단오제의 특성, 미로단오제에서 시행하는 단오굿의 전반적인 특성 등을 보다 자세히 논의하였다.²⁴

[10], [11], [13], [14], [15]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미로단오제의 원류를 오금잠제만이 아니라 삼척 지역의 여러 민속 행사와 연관시켜 심도 있게 탐색한 것이다. [14]의 경우, 미로면에서 행해지는 대표 행사 중의 하나인 ‘천제天祭’의 구조와 성격을 밝힌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미로면의 미로단오제를 천제와 연결시켜, 미로단오제의 연원, 운영 방식 등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15]는 삼척 오금잠제와 태백산 산신 옥도검의 비교를 통해서, 미로단오제의 기원은 오금잠제이며, 미로단오제는 강릉단오제와는 맥을 달리 하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재확인시켜 준 중요한 성과이다.

24 김태수, 「한국 산뱀이 신앙 연구」, 국제보교육중합대학원대 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3. 마무리와 과제

이상과 같이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를 살펴보았다. 이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로단오제’의 연원淵源에 대한 문제이다. 초기 연구에서는 ‘미로단오제’가 강릉단오제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구는 둘의 공통점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미로단오제는 강릉단오제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금잠제’의 유구한 전통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로면 일대에서 지금까지도 행해지는 ‘천제’, ‘동제’, ‘산메기’의 종합적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새로 제시되었다.

둘째, ‘미로단오제’가 지닌 중요성이다. 미로단오제는 타지역에서 행해지는 단오굿과 달리, 유식儒式 의례와 무속巫俗 의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특히 미로 단오굿의 연행에서, 가정 또는 문중 단위로 전승되어 온 ‘산메기’의 절차인 ‘잔맞이’가 미로단오제에서도 중요한 제의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²⁵ 미로단오제는 단순히 단오가 되던 행해지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미로단오제는 형태적으로 큰 단위의 고을굿인 강릉 단오굿과 달리, 마을 촌락을 중심으로 단오굿이 행해지며, 이때 해안 지역의 굿 문화, 마을 신앙, 세시적歲時的 성격을 띤 복합적인 ‘굿’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미로 단오굿의 연행 주체가 동해안 별신굿을 주재하는 무당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강릉단오제와 달리, 미로단오제는 동해안 지역 마

25 전성희, 「삼척 미로단오굿의 연행양상과 특징」,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8.

을긋의 전승 맥락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미로단오제가 지닌 중요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²⁶

셋째, ‘미로단오제’의 역사성과 지속성이다. 미로단오제는 시대에 따라, 단오제를 주관하는 무췌에 따라서 단오긋의 종목에 다소 변화가 있었다. 그렇지만 큰 차원에서 긋의 절차에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미로단오제는 단오긋을 중심으로 미로면 주민들에게 축제적 성격을 부여하면서, 개인과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염원을 담아내는 큰 축제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점이다. 이러한 미로단오제가 지닌 역사성과 운영의 지속성은 국가무형문화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²⁷

이제부터라도 미로단오제를 지역 공동체만의 축제가 아니라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동안 ‘미로단오제’의 보존과 연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 먼저 현재 미로단오제의 각종 의례는 90년대부터 김종식, 최재복 무인巫人 등이 계속해서 주관하거나 참여해왔다. 이들은 비단 미로단오제만이 아니라 오금잠제의 복원 등 삼척 지역 긋의 보존과 복원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30여 년간의 이들이 해온 활동, 이들이 주관했던 긋의 진행 상황 등의 자료를 축적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미로단오제와 미로단오제에서 진행되는 각종 긋의 전체를 정밀하게 녹화하고, 매년마다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체계적이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미로단오제에서 진행되는 긋의

26 윤동환, 앞의 책, 49쪽.

27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강원민속학회, 2020, 41쪽.

영상 자료와 사설 채록 작업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이다. 왜냐하면 미로 단오제를 운영하는 무속인과 지역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구의 지속성, 심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강릉단오제에 관한 연구는 학위 논문이 50여 편, 관련 논문이 200여 편에 이른다. 그에 비해서 미로단오제에 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여 편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풀^{Pool}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분야에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로단오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자들의 후속 및 심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연구를 심화 및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이 선행 연구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삼척시와 미로면에서는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방안을 지금이라도 수립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김도현, 「삼척 미로단오제 고찰」, 『아시아강원민속학』 34, 아시아 강원민속학회, 2020.
_____, 「삼척의 역사와 문화 연구에 대한 회고와 전망」, 『실직문화』 30, 삼척문화원, 2019.
- 김성환, 「태백산산신 옥도검과 삼척 오금잠제」, 『한국전통문화연구』 27, 한국전통문화대 전통문화연구소, 2021.
- 김의숙, 「민속신앙부분」, 『강원문화연구』 3,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1983.
- 김지옥, 「마을굿 연행양상 고: 삼척 미로 서낭 단오굿을 중심으로」, 『문화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2.
- 김태수, 「한국 산맥이 신앙 연구」,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국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 김태수·김진순,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산메기, 천제, 단오굿」, 『실직문화』 12, 삼척문화원, 2001.
-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 최길성·박호원 역, 『조선의 무적』, 민속원, 2014.
- 윤동환, 「강원도 무속의 양상과 특징」, 『한국민속학』 62, 한국민속학회, 2015.
- _____, 「초곡 단오굿의 전승양상과 의의」, 『도서문화』 31,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08.
- 이창식, 「단오굿 놀이에 대하여」, 『실직문화』 5, 삼척문화원, 1994.
- _____, 「삼척지방 오금잠제의 구조와 의미」, 『강원민속학』 7~8, 강원민속학회, 1990.
- _____, 「삼척지역 미로단오제의 전승 양상」, 『강원민속학』 22, 강원민속학회, 2008.
- 전성희, 「삼척 미로단오굿의 연행양상과 특징」, 『민속연구』 36, 안동대 민속학연구소, 2018.
- 정유진, 「박정희 정부기 문화제 정책과 민속신앙」, 『역사민속학』 39, 한국역사민속학회, 2012.
- 황루시, 「동해안 굿의 전승 상황과 특징」, 『한국무속학』 17, 한국무속학회, 2008.
- _____, 『삼척의 가정신앙』, 삼척시립박물관, 2015.

2. 기타자료

- 「삼척 미로단오제 행사 풍성」, 『강원일보』, 2008.6.6.
- 「삼척 미로단오제 구경오세요」, 『강원도민일보』, 2008.6.6.
- 「삼척 미로단오제 개막」, 『강원일보』, 2009.6.5.

Abstract

Current Status and Research History of Samcheok's "Miro Danoje"

Shin, Seong-hwan / Yoo, Choon-Dong *

The "Miro Danoje(Miro Dano Festival)" has been operated by local residents in Miro-myeon every year since at least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reason for paying attention to the Miro Danoje system is not just the aspect of "sustainability of operation" that the Danoje is regularly implemented. Along with the fact that "Miro Danoje" is maintained in a unique form that combines "a traditional Korean folk belief, Gut, the blessings of individual well-being, and the wishes of the village community," the origin of "Miro Danoje" reflects the tradition of Ogeum Jamje in Samcheok, and furthermore, the traditional Dano Dongje in the East Coast region.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Miro Danoje", related institutions and individual researchers in Samcheok have conducted various investigations and studies related to it. As a result, the origin of the "Miro Danoje", the process of the ritual, and the study of the main shaman in charge of the ritual were discussed. The ultimate goal of these efforts is to continue to maintain the "Miro Danoje" in the future and further establish it as a representativ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 Korea.

However, these goals have not yet been achieved.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current situation is the fact that the number of professional shaman or local people who can host the "Miro Danoje" is now decreasing exponentially. Therefore, for the future of the "Miro Danoje," various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rom now on. In this article,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transmission status of the "Miro Danoje" and the value as a cultural property were examined, and major measures related to this were presented.

Keywords Samcheok, Dano, Miro Dano, Ogeum Jamje, Cultural Heritage Value,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romotion Plan

이 논문은 2023년 11월 25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12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